

## 交通開發研究院

## “國民의 交通福祉 달성을 目標”

교통개발연구원(원장·愼富鏞박사)은 여의도 라이프빌딩에 자리하여 한강과 올림픽도로를 한눈에 내려다 보면서 현실의 시급한 교통문제는 물론 미래의 교통발달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교통·관광정책 및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교통·관광정책에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교통·관광발

이 연구원은 개원한지 불과 2년여의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크고 작은 많은 과제들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해왔다는 평이다.

주요연구사업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의 5대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연구 ▲자율과 개방에 따른 교통부문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으로서 운수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범위와 단계별 시행방안 및 국제화 수용을 위한 제도개선

통운영 사업계획에 관한 연구 ▲고속도로 유료화제도와 통행료 설정방법 연구 ▲충주호권역 관광종합개발계획 연구 ▲교통영향평가제도 시행방안 연구 ▲도로영향평가제도 시행방안 연구 ▲도로교통신호체제 제어용 중앙컴퓨터장치 개발연구 등을 수행해 왔다.

일반사업으로는 ▲교통안전정책 및 도시교통정책 워크숍 ▲자동차 번호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는 한편 UNDP교통정보관리체제 개발사업으로 주요도시 및 전국의 교통효율증진, 교통정책자료 수집을 위한 교통정보관리체제 개발연구, 교통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물론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연구결과에 대한 대외홍보를 강화하고 우수논문에 대한 포상제도를 실시함은 물론 특히 우수연구 인력확보에 주력하여 박사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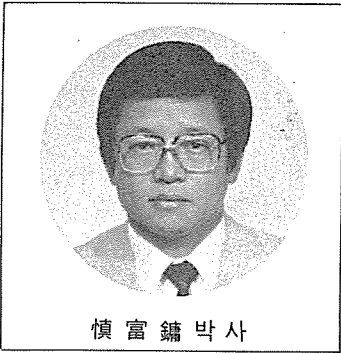
## 綜合的·專門的 交通문제연구

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5년 11월에 교통부로부터 재단법인 교통개발연구원 설립허가를 받고, 1986년 2월에 현재의 교통개발연구원을 개원한 것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의 현재 정원은 연구직 73명, 관리직 15명, 기능직 15명 등 약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구성원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연구개발에 정진하고 있다.

관한 연구 ▲대도시지역의 체계적 집배송시스템 확립방안 모색 및 소량화물의 배달운송체제 개선계획 등 도시내 배달운송체제에 관한 연구 ▲전국 화물정보체제 운영방안 및 전산운송시스템 기본계획 등 화물정보망 설립 및 운영방안연구 ▲자동차 증가에 대비한 교통정책방안 제시 ▲도시규모에 적합한 대중교통수단 모형등의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다.

수탁연구로서는 ▲부산시 교



慎 富 鏞 박사

인력 10여명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 연구원의 발전방향은 ① 교통부문연구의 중추기관으로의 육성·발전 ② 교통부문정책 수립 적극지원 ③ 우수인력 확보 ④ 연구원의 과학화 및 효율화 ⑤ 연구협조체제 강화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통부문연구의 중추적기관으로서 교통부문의 정책연구·순수연구는 물론 기술용역의 중추적 기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교통부문 기술 및 선도적 기능을 발휘한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교통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뱅크를 구축하는 한편 선진기술 도입 및 외국과의 기술교류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교통부문 정책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고 정책수립을 위한 현안문제와 정책목표를 조화시킨다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우수인력 확보 및 운용방안으로는 선임연구원 이상 특히 고학력 소지자를 증원하는 한편 연구원에 대한 전문기능을 강화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

기 위해 연구원에 대한 해외교육·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우수 연구논문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하며 연구활동 장려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것이다.

연구의 과학화 및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컴퓨터 및 교통량 측정장치등 연구에 필요한 첨단기자재를 확충하고 교통관련 자료의 축적 및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국내외의 관련 도서를 확충하여 교통분야 전문도서관으로 발전시키고 아울러 교통현황 조사분석 및 소프트웨어 보급체제를 구축하여 교통정보체계의 전산망을 구축한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 교통부문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독자적기술개발 역점

연구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부처, 학계, 산업계, 언론계, 기타 전문기관 및 유관단체와의 학문적 기술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외국과의 학술 및 연구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학술·연구단체에의 가입과 활동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과 아울러 외국 학술·연구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보면,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정책의 연구로서 승용차 교통대책·대중교통대책·광역도시교통체계 확립·교통안전 증진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운수사업발전을 위한

연구로서 인가 및 면허제 등 사업제도 개선은 물론 운수업 경영개선과 화물운수체계현대화를 위한 방안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해 교통계획 및 운영관리모델을 수립하는 한편 교통관리자료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교통관련 법제와 행정체제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법제 및 행정규제를 정비개선과 아울러 교통행정체제의 합리화 방안을 연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교통개발연구원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설정

하고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을 단계적으로 면밀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국민의 교통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 국제화는 교통기관의 발달과 더불어 그 기능확대를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되었으며, 또한 국민소득의 증대와 여가의 증가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보다더 질높은 생활의 추구를 보편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연구기관으로서 교통개발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자못 큰 것이다.